

예 배 WORSHIP

September 2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사역과 행사 안내 |
|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직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 |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17:14-18 필요가 새로운 기획이 되도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246장 /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일찬송가 221장) |
| 현신과 나눔 | 봉 헌 / 김훈테 집사, 구은강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삶과 세상으로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40:34-3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원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기는 커녕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며,
썩어져 버려야 할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지
돌아 보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자. (에베소서 4:22~24)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몸이 기쁘게 주님의 말씀하시는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고되고 힘든 교회 사역이 짐이 아니라
삶의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약한 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 주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순을 부서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노회미야 8장 10절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함께
일하리라."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함께
일하리라."

삼과 신앙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기원전 3세기 동서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작됐다. 중국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로마제국은 이 시기부터 약 500년에 걸쳐 로마 가도를 만들었다. 진시황은 이민족을 막는 성벽을 쌓았고, 로마제국은 세계로 연결하는 길을 내었다.

이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로망이다. 로마인들은 로마에서 시작하여 제국의 영도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여, 수송로를 만들었다. 도로는 적들이 침공할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 위험성이 있는 양날의 칼이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도로 건설을 선택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가 흥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반면 중국은 길을 막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 차이가 중국과 로마의 운명을 갈랐다. 당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중화(中華), 즉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자긍심이 됐지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이기도 한 양날의 칼이다. 특히 만리장성 안에 있는 자신들은 중화, 성 밖에 있는 민족들은 오랑개라고 더 확실하게 분류했다. 그러나 오랑개로 불리던 흉노족, 선비족, 몽골족은 자유자재로 만리장성을 넘었다. 만리장성을 쌓기 위한 과도한 세금과 강제적 노동력 동원은 오히려 진나라 몰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도로를 닦는 사람이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으로 성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며 자신들을 의롭다 하며 다른 불의한 자 혹은 세리와 분리했다(눅 18:11). 바리새인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남에게 눈총 쏘는 사람, 만리장성을 쌓는 분리주의자의 모습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며 구분짓는다. 기도의 내용도 그렇다.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오랑개, 자신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의 영성이 있어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도로를 뚫어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 경계에 꽃을 피우셨다(엡 2:14).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초대교회인 안디옥교회를 보면, 소통하고 길을 닦는 감동이 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 13:1)

안디옥교회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유대인의 대적자였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일을 했다. 또한 안디옥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 등 은사도 각각 있었다. 안디옥교회는 한마디로 서로서로 하나 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과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리장성이나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지 않는다. 대신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며 길을 연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이다. 움켜쥐려는 자는 쇠하고, 나누어주려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 그리고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흥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자.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사역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

- go.godpeople.com 말씀 테마 참고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끝까지 충성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섬김의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주일성경공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 인물 탐구: 고순제
3.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4. Youth Ministry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6. **Power Prayer 2019** 서약한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 교우동정 - 김신실 집사 / 한국 가족방문

♥생일 축하♥ 이정운 (30)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총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 | | | | |
|--------|---------|---------------|----------------|-----------------|----------------|
| 예배 섬김이 | 주일예배기도 | 9/29 최내권집사 | 10/6 최선윤집사 | 10/13 고순제전도사 | 10/20 구 민집사 |
| | 금요일예배기도 | 10/4 오정은집사 | 10/11 박진성집사 | 10/18 김훈태집사 | 10/25 정총렬목사 |
| 주일헌금위원 | 주일안내위원 | 9/29 | 10/6 | 10/13 | 10/20 |
| | | 김훈태집사/구은강집사 | 홍현근집사/오정은집사 | | |
| | | 9월 | 10월 | | |
| | | 김훈태집사 | 최내권집사 |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여호수아 14:6-15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던 갈렙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섬기며, 예수님을 위한 손해를 감내하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담이나 섬김이 요청되지 않는 잘 준비된 예배에 참여하는 쉽고 편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마치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청해 섬기는 교회를 세워 가는 사역이 비록 힘들어도 책임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 여호수아 17:14-18

필요는 불평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셉 지파의 불평과 그 해결책은?

잠재력을 활용하고 기회를 선용하라고 권면한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자.

필요가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 여호수아 17:14-18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전면적인 정복전쟁을 중단하고 정복지와 미정복지 모두를 아홉 개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후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합니다. 레위지파가 빠지고 자신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었으니 제비를 두 개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므로 요단 서편에 있는 요셉 지파는 하나만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쾰렸다고는 하나 당시 인구조사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을 합한 숫자는 단이나 잇사갈 지파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받은 땅은 결코 좁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제비를 주장했던 그들에게 요셉의 후손이라는 우월의식이 더 많이 작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땅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즉, 필요한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답합니다. 맑은 기업 중 미정복지나 미개척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기회의 땅을 스스로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미정복지에 철 병거를 가진 이들이 버티고 있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만약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스스로 자신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땅을 정복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만큼, 그들이 개척하는 만큼,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려워 할 진정한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정복할 수 있는 땅, 개척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므로 큰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비옥함, 그 땅의 잠재력을 보아야 했습니다. 강해 보이거나 그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회란 이런 겁니다. 좋은 기회의 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다른 땅을 달라고 불평하였던 요셉 지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의 사역을 이미 시작한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로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September 29,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기도의 달 선교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세상오만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를 나는 만네